

## 어린아이들의 주님

<sup>21</sup>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sup>22</sup>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sup>23</sup>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sup>24</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눅10:21-24)

일반적으로 학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Divine truths*)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까닭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울 때 지식(*memory-knowledges*)을 통해 배우려 하며 그렇게 해서 내적 통찰력(*insight from what is higher or interior*)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내적 통찰력이 파괴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천국의 빛을 통해 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식은 세상의 빛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천국의 빛에 의해 비추어지지 않으면 암흑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AC.4760:4) *It is as it is well known a common thing for the learned to have less belief in a life after death than the simple, and in general to see Divine truths less clearly than the simple. The reason of this is that they consult memory-knowledges (of which they possess a greater abundance than others) from a negative standpoint, and thereby destroy in themselves insight from what is higher or interior; and when this is destroyed, they no longer see anything from the light of heaven, but only from the light of the world*

눅10:21-24

‘어린아이들의 주님’

*d; for memory-knowledges are in the light of the world, and if these are not illuminated by the light of heaven they induce darkness, however different it may appear to themselves. (AC.4760:4)*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야곱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챙기고, 두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압박 나루를 건넵니다.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아 있는데 문득 어떤 사람이 나타나 둘 사이에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독하게 대들었는지 허벅지 관절이 빠졌는데도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말씀에는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으로 짐작이 되는 분을 만나 밤새 씨름을 하여 이겼다는 뜻일까요? 글자 상으로는 그렇게 읽히지만, 그러나 그 속뜻으로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당하셨던 시험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야곱으로 표상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여호와와의 축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주님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축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씀의 외적인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

대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고, 단지 교회를 표상(表象, 무대에 올라 맡은 연기를 하는)하는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내면에는 교회를 이룰 만한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사랑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예배를 통해 어떻게 주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출28:42)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베로 속바지를 만들어 그들

의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체'는 유대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결한 욕망들을 나타내고, '속바지를 입히는 것'은 그러한 욕망들이 예배의 행위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외적인 의미를 통해 막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속바지를 만들어 입히는 것의 속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이 불순한 욕망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욕망들이 예배 행위 가운데로 흘러 들어온다면 예배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 중에 그들의 내면을 단으시고, 불결한 것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 하체를 가리게 하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표상 교회인 유대교회 가운데로 임재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 인류 전체와 소통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표상인 것처럼 신앙인

눅10:21-24

### ‘어린아이들의 주님’

들 가운데도 내면에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믿음과 삶의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믿음만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칠십 인의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씀드렸을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끔 믿음만 있고 삶은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맡아한다고 해서, 즉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 모두가 당연히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였어도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삶의 행위로는 아닌 걸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sup>21</sup>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

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이 왜 주님께 기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어느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이 됩니다. 전자의 상태일 때는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와 주님께 매달리면 성령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주님에게나 인간에게나 기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진리를 삶으로 옮기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사는 모든 선한 것을 오직 주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께 감사하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동반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진리 속으로 한 치도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아버지'는 선 그 자체이신 주님을 뜻하고, '아들'은 선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이신 주님을 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신 신성 그 자체이시고, '아들'은 신성에서 비롯된 거룩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진리가 선의 형상인 것처럼, 즉 선이 어떤 형상을 띠고 나타난 게 진리인 것처럼 거룩한 인간(Divine Human)이신 주님 역시 신성의 형상, 즉 신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바로 신적 인성(Divine Human)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이제껏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을 이기시고, 거룩한 인간이 되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된

‘어린아이들의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인성까지 거룩하게 만드시고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인간은 신성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러므로 거룩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간접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접 이해’는 심지어 삼층 천 천사들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이야말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에 대해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달라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으며 진리를 따라 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sup>23</sup>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sup>24</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바’는 부활하신 주님이 밝혀주시는 새 교회 신앙, 곧 새로운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바’는 그 신앙에 따른 삶을 뜻합니다.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마지막 교회와 함께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빛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통찰할 힘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을 내세움으로써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내적 통찰력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린이와 같은 순진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것에 대해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마21:15)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이들을 보고 제사장들이 노(怒)했다고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에 대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8: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8:2)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온갖 지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성령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동반한 진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 안에는 주님이 계시며, 그래서 성령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눅10:21-24

‘어린아이들의 주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할 때 순진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뱉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11:8)

어떤 지옥의 독사들도 순진한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순진함이 오늘 서울 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과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sup>40</sup>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sup>41</sup>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sup>42</sup>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sup>43</sup>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sup>44</sup>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

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sup>45</sup>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 오지 아니하였느냐 <sup>46</sup>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sup>47</sup>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sup>48</sup>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sup>49</sup>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 7:40-49)

아멘

원본

2019-10-13(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7일(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